

테러리즘의 기억을 둘러싼 지식인들의 성찰적 담론*

조영실(서울대)**

- I. 머리말
- II. 집단기억의 형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논의
- III. 몬또네로스에 대한 새로운 논의
 - III.1. 우파의 '두 악마론'과 그 허구성
 - III.2. 좌파혁명세력에 대한 증언기록물들
 - III.3. 몬또네로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 IV. 맺음말

I. 머리말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초반 좌파 혁명세력과 극우파 사이의 충돌로 전혀 없는 사회적·정치적 동요를 겪었다. 그런 사회적 불안정은 급기야 군부 세력이 국가적인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빌미가 되었고, 그 결과 1976년부터 1983년의 7여 년에 걸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의 역사를 겪게 되었다. 군부 독재의 집권기는 '추악한 전쟁'(Guerra Sucia)이라는 악명으로 불릴 만큼 폭압적인 국가테러리즘의 역사였다.¹⁾ 그것은 정치적 암살과 납치, 감금과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72-AL2001).

** Young-Shil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choysh00@hanmail.net), "The reflective discourses of the intellectuals about the memory of terrorism in Argentine".

1) 군부 스스로는 이를 '국가재건과정(Proceso de la Reorganización Nacional)'이라고 명명했다.

추방, 검열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들어선 후 1980년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재건 문제가 주된 사안이 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민선 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독재 시기 동안 발생한 인적, 물질 피해의 규모가 심각했고 암흑의 역사가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공포감과 분노가 여전했을 뿐더러 국가테러리즘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통제 또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 합의된 민주화로의 이행이나 민주주의의 재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국가 헌정질서의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대학살의 역사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은 군사평의회(Junta Militar)의 우두머리 및 고위 장교들에 대한 완전한 사법적 심판과 실종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도래는 정의의 실현을 의미했고, 정의의 실현은 법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후이나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는 1983년 알폰신(Raúl Alfonsín)과 함께 민선 정부가 들어선 직후 ‘실종자조사국가위원회(CONADEP,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 위원회를 통해 폭력과 억압의 시기에 발생한 실종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려는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과 군사정권의 집행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인 처벌은 쉽게 달성되지 못했다. 좌파 무장세력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두 말할 것도 없었다. 그에 따라 군사정부에 의한 국가 테러리즘이 자행되었던 시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과제는 1990년대를 거쳐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로부터 떨어진 듯한 오늘날까지도 사회적,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국가의 경제 성장이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정치·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이러한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 3만 명이라는 무고한 희생자를 남긴 질곡의 역사는 집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쉽사리 소멸되거나 망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2) 2001년의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겪고 난 뒤인 2003년 집권

한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정부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메넴(Carlos Saúl Menem) 정권에 의해 방기되어 왔던 정의의 실현, 곧 ‘추악한 전쟁’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그들의 인권 복원의 과제도 부여받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국가테러리즘의 대학살로 인해 빚어진 아르헨티나 근대사의 질곡을 하나의 공적·사회적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성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식인들의 담론들은 좀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투쟁, 다시 말해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지속적인 진상조사 규명 투쟁이나 그 외 APDH(인권상임위원회, Asamblea Permanente por los Derechos Humanos), CELS(법과사회연구소, 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SERPAJ(평화와정의센터, Servicio de Paz y Justicia) 등 여러 인권 단체들의 활동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찰을 도모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추악한 전쟁’에 대한 역사적 책임문제가 보다 광범위한 계층, 다시 말해 아르헨티나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1983년 민주화 직후에는 국가테러리즘의 발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던 상황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추악한 전쟁’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비롯되었고, 더불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억’의 테마가 강력한 문화적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물론 아르헨티나 전 사회의 논의가 전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선회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성찰적인 사회문화적 담론을 구축해가는 주된 축이기도 한 지식인들, 특히 좌파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논의이

2) 3만 명은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비롯한 비정부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치이다.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의 보고서인 『눈까 마스』(*Nunca más*)에서는 최소한 8,960 명으로 보고 있다.(CONADEP 1985, 16)

3) 엘리사벳 헬린은 안드레스 후이센의 ‘기억의 문화’(culture of memory)라는 표현을 인용하여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기억의 담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Jelin 2002, 1)

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 또한 학살자들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나 실종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희생된 자들의 인권 회복 등의 문제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오른 이 새로운 문제제기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

본론에서는 먼저 ‘책임’이라는 논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일다 사바토(Hilda Sabato)와 우고 베세띠(Hugo Vezzetti)의 논의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이 두 학자는 역사적 책임의 문제를 아르헨티나인 전체에게 확장시켜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베아트리스 사를로(Beatriz Sarlo)는 1970년대의 좌파혁명세력, 특히 강경파 무장세력이었던 몬토네로스(Montoneros)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한다. 사를로는 『열정과 예외』(*La Pasión y la Excepción*, 2003)라는 저서를 통해 논의를 집대성하고 있는데, 이 책의 논지는 평등과 정의가 구현된 세상을 이루고자 혁명을 회구하던 세력들의 오류에 대한 엄격한 비판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 스스로도 혁명을 위해 투쟁하던 좌파 그룹의 일원이었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일종의 자아비판이기도 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따라서 그의 논의의 내용과 자칫 아르헨티나 민주 세력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게 된 맥락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II. 집단기억의 형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논의

7여 년간의 군부 집권이 남긴 역사적 상흔은 납치, 고문, 살해를 당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국가테러리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자들도 폭력과 압제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시기 폭력과 억압은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좌파 사회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오라시오 곤살레스(Horacio González)가 단언했듯이 그 시기는 ‘공포’의 시기였다. 공포는 “언어로 표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이자 “언어가 고갈되고 끝나버리는 지점”이다.(Strejilevich 1999) 즉,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사실

대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공포의 상태가 7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이는 테러리즘의 억압 하에서 아르헨티나 인들이 수동적으로 순응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억압된 공포의 기억들은 민주화 이후 실종자조사국가위원회의 활동이나, 오월광장어머니회처럼 자발적으로 형성된 인권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증언이나 기록물의 형태로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산재된 개인적 경험의 기억들이 축적되는 상태를 넘어서서 집단적인 기억의 형성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드러나지 않고 억눌려 있는 개인의 기억들(*remembrance*, *recuerdo*)이 표출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집단기억(*memory*, *memoria*)으로 응축되는 과정에서 ‘추악한 전쟁’ 시기 동안 왜곡되어버린 아르헨티나 사회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될 조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사적으로 암울했던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 과제가 대부분 불완전하거나 미완으로 끝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에서도 테러리즘의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의 형성에 대한 문제는 전 사회에 걸쳐 다 시금 논의의 대상이 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베세띠와 사바또가 제기하는 ‘사회적 책임성’(responsabilidad social)의 논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은 집단 기억의 문제를 거론한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다. 베세띠는 정신분석학자로서 정신분석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역사를 읽어내려는 시도를 해왔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테러리즘 시기에 대한 집단 기억 형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집단기억 형성 주제를 사회 전체의 책임성이라는 주제와 관련지어 제기하고 있다. ‘집단 책임’이라는 주제는 홀로코스트와 나치 전범의 문제를 두고 독일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테제로서, 1996년의 골드하겐(Daniel Goldhagen) 논쟁이 대표적인 예이다.⁴⁾

4) 이 논쟁은 1996년 4월 차이트 지 폴커 울리히 기자가 한 달 전 미국에서 출간된 젊은 정치학자 다니엘 골드하겐의 책 『히틀러의 자발적 집행자』(*Hitler's Willing Executioner: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촉발되었다. 골드하겐은 이 책에서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히틀러 한 개인에게 돌리던 종래의 역사서술을 거부하고, 독일인들의 정서에 뿌리 깊게 박힌 반유대주의 감정이 홀로코스트의 정서적 배경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나치정권의 창출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일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군사정권에 동조하고 옹호한 세력은 소수였다. 그러나 베세띠는 “기억이 우리를 한데 묶는다”(La memoria nos involucra)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군부독재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다루는 가운데 ‘집단 책임성’을 거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쿠데타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국민들은 극도의 국가적 무질서를 겪었기 때문에 쿠데타 초기에 국민들 사이에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가 들어서서] 차라리 잘됐다.”(Vezzetti 1999)⁵⁾라는 감정이 팽배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는 ‘집단 책임성’을 논의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권력 쟁취를 위한 계속되는 정쟁을 겪는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입헌정부보다 차라리 독재정부가 더 낫다는 의식이 만연했던 것이 쿠데타가 가능한 간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집단 책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주제는 아니다. 원론적으로는 한 사회가 독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추겼다는 점에서 집단 책임성이 제기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세띠의 문제 제기는 독재와 억압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회피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령, 독재의 권력 장악을 피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도 한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베세띠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외부 세력의 점령이나 개입에 의해 독재가 강제된 것이 아니었지만, 쿠데타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좌·우파 간의 정쟁과 좌파 내부의 알력 등 폭력의 전통이 존재하던 중이었고, 그러한 전통이 군사정권이 들어설 여지를 낳았다고 보았다.

물론 권위주의 군사체제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데 직접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했던 보수우익 세력들은 변명의 여지없이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것은 강경한 우익 세력 이외에도 기업가들과 노동조합, 교회세력, 언론계 등 다양한 부문에

반 독일 대중의 공동 책임론을 제기했다.

5) 베세띠 글의 전문은 ‘역사와 기억’ 프로젝트 홈페이지의 라틴아메리카팀 아르헨티나 번역사료 27번 참조(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걸쳐 독재체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세력들의 수동적 동조는 독재가 들어설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1976년 3월 24일의 쿠데타는 수구 정당들과 쿠데타 당사자들만 자축한 파티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가 동조한 파티”(Vezzetti 1999)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아르헨티나 사회를 순수한 희생자로 간주해오던 기존의 시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는 태도로 나아간다. 베세띠는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피해자연하는 관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제는 범죄에 대한 기억과 고발만 중요시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 경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질적으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한 권력 핵심부와 지도층에게 최대의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할 필요없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집단의 책임이라는 주제는 역사학자인 일다 사바또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사바또는 “기억, 과거 그리고 미래”(la memoria, el pasado y el futuro)라는 글을 통해⁶⁾ ‘범죄를 가능하게 한 정신적·문화적 맥락에서의 집단적 책임’이라는 테마를 아르헨티나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제기한다. 사바또는 먼저 공포정치 시대 동안 아르헨티나 사회를 지배했던 관념들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연구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역사적 과거에 대한 집단적인 자성(自省)의 분위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즉, 아르헨티나 인들은 『눈까 마스』 보고서 작성이나 군사평의회에 대한 재판을 통해 군부 세력의 범죄를 폭로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데 열중했을 뿐, 정작 자신들을 그 범죄의 현장에 불러 세우려고 한 적은 없었다는

6) 사바또의 이 글은 2000년 3월 제1회 집단기억 형성에 관한 라플라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전문은 상기한 ‘역사와 기억’ 홈페이지 아르헨티나 번역사료 28번 참조.

것이다. 스스로 범죄의 공모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범죄의 증인이자 학살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자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사바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아르헨티나 인 전체도 공모자이자 범죄의 일부분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베세띠와 사바또의 이상의 문제제기는 상당히 폭넓게 수용되어가는 중이며, 아르헨티나 테러리즘과 권위주의 정권의 암흑의 역사에 대한 진실보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몬또네로스(Montoneros)에 대한 새로운 논의

이 장에서는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 몬또네로스에 대한 재평가를 제기한 사를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우파세력에 의한 몬또네로스의 왜곡된 평가의 역사를 밝히고, 다음으로는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몬또네로스에 대한 회고적인 기록물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후자의 기록물들은 몬또네로스의 일원이었거나 좌파무장세력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파 세력의 입장에 대한 ‘반(反)’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중심적인 논점으로 사를로의 관점을 다루고자 한다. 좌파무장세력 자신들에 의한 회고록들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반’이라면, 사를로의 관점을 ‘합(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몬또네로스에 대한 일방적인 호도도 아니고, 몬또네로스의 폭력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하는 회고하는 것도 아닌, 제3의 반성이자 평가이기 때문이다.

III.1. 우파의 ‘두 악마론’⁷⁾과 그 허구성

민주화 이행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제기될 때마다 나타나는 지속적인 공통점이 목격된다. 그것은 군부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을 때마다 좌파 게릴라 조직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어야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는 식의 논조이다. 이는 두 세력의 책임을 등가의 것으로 봄으로써 군부의 책임을 완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의 소산이다. 이러한 논의의 문제점은 그러면서도 게릴라 세력의 정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기억의 복원 작업은 지속적으로 은폐되고 금기시되어왔다는 데 있다. 책임의 등가성만 거론될 뿐이지 그 실체에 대한 연구와 언급은 금기시되고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1970년대 초반의 좌파 혁명세력에 의한 폭력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표면화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최근 군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기억의 형성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좌파 무장세력의 실상을 명백히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절차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좌파 무장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연구가 뒤늦게 시작된 데에는 또다른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군정이 끝난 이후 민정이 들어서자 군부독재의 죄상을 밝히려는 작업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었던 반면, 학살자 처벌과 과거 청산을 주장하는 주체들 스스로가 자행한 납치, 암살의 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혁명투쟁의 주체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한 어려움이 좌파 테러리즘의 실체를 거론하는 게 억압받던 권위주의 정권 하의 오랜 사회적 금기와 터부의 분위기에 합쳐졌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테러리즘의 범죄를 법적, 도덕적 심판의 도마에 올려놓은 것과 동시에 좌파 세력의 무장 폭력행위에 대한 논의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7) 국가 테러리즘과 좌파 테러리즘이라는 테제를 병치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에 대한 책임의 절반을 좌파 무장세력에게 전가한 논리이다.(Sonderéguer 2000; Vezzetti 2002, 121-128)

자각이 일었다. 그러한 객관성이 국가 테러리즘의 죄상을 명백히 하는 데 버팀목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역사적 기억의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일찍부터 ‘두 악마론(doble demonios)’이라는 논리가 존재했다. 그것은 군부와 전통 보수세력 사이에 정형화된 논리이다. 그 내용은 쿠데타 직전에 난무하던 아르헨티나 사회 제도와 국가 질서의 혼란이 ‘아르헨티나반공동맹(AAA)’과 같은 극우파의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그 빌미가 된 70년대의 좌파 게릴라 조직들의 테러리즘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이 논리는 극우파의 무장폭력과 좌파 게릴라의 테러리즘을 동시에 병렬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질서의 쇠퇴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군부세력은 쿠데타를 일으킨 후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했던 반면 좌파 무장세력들에 대해서는 ‘전복세력’(subversivos)으로 지칭하며 철저한 응징을 가했다. 이것은 군부의 ‘두 악마론’이 허구적이고 편의적인 논리일 뿐임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두 악마론’은 독재 이후 알폰신 정부의 민주화 이행기에도 부활하여 군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논리로 작용했다. 즉, 군부에 의한 국가테러리즘이 악(惡)이긴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악인 좌파 무장세력의 폭력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존재한 악이었다는 것이다.(Vezzetti 2002, 121)

사실 민주화 직후 알폰신 정부의 입지는 그다지 굳건한 것은 아니어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군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군의 고위급 간부들은 비록 대통령의 통수권 원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미온적인 방어책이었을 뿐이다. 군 장성들은 민선 정부에 의해 제시된 예산 삭감이나 몇 가지 조직재편을 수용했고, 군부 시기 동안 벌어진 대규모 부정부패나 가장 잔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령관들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었고 조사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군의 명예가 훼손되는 데 대해서도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알폰신은 아직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군의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민주화를 추진하려면 군 문제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군부 고위층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몬토네로스 좌파 게릴라들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함께 거론하는 논리에 부분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폰신 정부는 그러한 유화책이 평화로운 민주화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여겼다. 그 결과 1986년과 1987년에 두 개의 사면법을 공포했고 이 두 사면법에는 ‘국가질서 전복 음모 세력’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⁹⁾

그것은 몬토네로스와 ‘인민혁명군(ERP, Ejército Revolucionario del Pueblo)’의 지도부도 고위급 군부세력과 마찬가지로 사법적 기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알폰신의 조치는 정치적 폭력과 비밀결사행동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법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 세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좌파 무장세력에 대해서도 죄를 묻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과도 정부의 딜레마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두 악마론’이 민주화 이행기에 좌파 테러리즘에 대해 불리한 논리로 작용했음은 대부분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동의하는 점이다.

무수한 실종자를 낳은 국가 테러리즘과 극히 제한적인 힘을 행사했던 좌파 무장세력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

8) 민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알폰신 정부와 군부의 이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상기한 ‘역사와 기억’ 홈페이지 사이트의 번역사료 18번 ‘알폰신 정부와 군부의 관계’(1984년 3월 21일) 참조. 원문은 미국무성 비밀분류해제문서 “Relations between the Alfonsín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73/index.htm의 Document 15번)

9) 두 사면법은 ‘공소시효만료법(Punto final, 1986년 12월 24일)’과 ‘의무복종법(Obediencia debida, 1987년 7월 8일)’을 말한다. 두 사면법의 역어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기호도의 차이가 있다. 박구병은 각각 ‘기소종결법’, ‘강제명령에 따른 복종법’으로 풀어내고(2005, 58), 이국운은 ‘정당한 복종에 의한 사면’과 ‘기소최종중지법’으로 옮기고 있다.(1995). 두 사면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한 ‘역사와 기억’ 프로젝트 팀 번역사료 19번과 20번을 참조할 것.

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쪽의 책임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좌파 게릴라 세력의 투쟁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 좌파 게릴라 세력의 테러리즘으로 인해 군부독재의 범죄적인 테러리즘 기획의 조건이 유리해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이라는 투쟁 방식은 당시의 여러 사회 계층에게도 반목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즉, 좌파 무장 세력에 대한 군사정권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독재 초기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얻기도 했던 것이다.

베세띠가 파악하는 ‘두 악마론’의 첫 번째 조건은 좌파의 테러리즘이든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적 테러리즘이든 공통적으로 폭력에 대해 열광했다는 사실에 있다. 즉, 좌파 테러리즘은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무장 투쟁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국가테러리즘은 성전(聖戰)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법 제도의 기준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성이 있다는 뜻이다.(Vezzetti 2002, 125)

그러나 베세띠는 여기에서 왜곡된 ‘두 악마론’과는 다른 방식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제기한다. 즉, 무차별적인 폭력과 제도적 혼란의 무대에서 급진적인 좌파세력이 독재에 좋은 핑계를 제공했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부정될 수 없지만, 그것은 홉스봄(Eric Hobsawm)이 좌파 전통이 20세기의 야만을 야기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넓은 의미의 군사적·전략적인 오류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좌파 무장세력은 좌·우파 사이의 적대적인 체제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중까지 혁명의 지지자로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의 방법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좌파 무장세력의 오류라는 것이다.

1960년대 말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제도에 맞서는 폭력과 저항이 대부분의 사회 계층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좌파 혁명세력들이 무장투쟁을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점차 여러 사회 계층과 유리되었다. 급기야는 존재의 기반이 되는 민중 세력과 유리된 상태에서도 전쟁과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베세띠는 바로 이것이 7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 사회의 극단적인 좌·우파 테러리즘으로 치닫게 했다고 본다. 이러한 오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 초기에 군부에 의한 체포, 구금, 고문 등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군사독재의 범죄성을 논할 때에도 전혀 무장투쟁과 연관성이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문제 삼았다. 좌파 무장세력의 희생은 그들이 저지른 반란과 폭동에 대한 응당의 대가라는 식의 시각들이 일반화된 것이었다.

베세띠는(2002, 128), 1970년대 초 좌파세력의 기억 - 유토피아의 성취가 가까이 있다고 믿었던 - 이 전부 거짓이라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실천과 기획이 지닌 집단 해방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죄양적인 회고의 시각을 통해서 좌파의 정치적 폭력에 대한 기억의 왜곡성을 제대로 극복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러한 노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작업은 적어도 폭력과 혁명의 테러리즘에 대해 ‘악마’라는 이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III.2. 좌파혁명세력에 대한 증언기록물들

앞 장에서 논의한 ‘두 악마론’이 민주화 과정에서 되살아난 것은 아르헨티나 집단기억 형성 작업이 군부정권 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좌우의 테러리즘의 갈등 시기에서 시작되어야 했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즉, 공포의 역사가 두 개의 동등한 악의 세력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테러리즘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의 수단이었던 데 비해,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을 수단으로 하여 벌어진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테러리즘이었으며, 그 힘의 불균형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밝혀져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각의 결과 1990년대의 기억 형성 테마의 방향에 변화가 찾아왔다. 1980년대에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의 과제가 국가테러리즘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에 따른 정의의 실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두 악마론’의 왜곡을 벗겨내고, 좌파 세

력의 공과와 오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스스로 무장세력이었던 사람들에게 의한 증언과 기억들이 공적인 장에서 표출되면서 그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좌파 무장세력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6년 3월 『유토피아 사냥꾼들』(Cazadores de utopías)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였다.(Sonderéguer 2000). 이 영화는 다빗 블라우스타인(David Blaustein) 감독의 인터뷰 형식의 다큐멘터리로, 1970년대 좌파 혁명 투사들의 회고와 증언에 대한 긴 인터뷰라고 할 수 있다.¹⁰⁾ 또한 1970년대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혁명 세력 당사자들 스스로 내린 해석도 담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있는, 겨우 20년 남짓 지난 과거 역사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개봉되자마자 1970년대의 무장세력을 둘러싼 논쟁을 아르헨티나 사회에 촉발시켰다. 대표적인 논쟁이 일간지 『빠히나 12』(Página 12)에서 전개된 것이다.

영화가 개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빠히나 12』에 저널리스트 미겔 보나소(Miguel Bonasso)와 가브리엘라 세루띠(Gabriela Cerruti)의 글이 나란히 실림으로써 그 논쟁은 촉발되었다. 논쟁의 제목은 “기억, 몬또네로스, 그리고 미래”였다.¹¹⁾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관점을 표명하며 여러 독자들이 논쟁에 가담해 70년대의 몬또네로스를 기억하여 평가하고, 그에 의거해 미래를 논의할 것을 종용했다. 그에 따라 정치적·문화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여러 지식인들이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몬또네로스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가 몬또네로스 혁명투쟁의 주인공이었던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그 시기를 실제로 경험한 나이든 세대인가 아니면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은 젊은 세대인가의 차이도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가령, 1970년대 당시 몬또네로스 일원으로 무장투쟁의 주역이었던 보나소는 이 영화를 “몬또네로스의

10) 이 영화는 150분에 걸친 총 34명의 좌파 투사들에 대한 증언의 기록이다.

11) <Debate sobre la memoria, los montoneros y el futuro>, *Página 12*, 7 de abril, 14-15.

서사시”(*épica de los Montoneros*)라며 영화에서 다루어진 내용들과 서술된 혁명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정당화했다. 반면에 가브리엘라 세루띠는 ‘그들(1970년대의 몬또네로스)’과 ‘우리들(몬또네로스에 속하지도, 그 시기를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명확한 구분을 통해 몬또네로스의 역사에 대해 비판했다. 세루띠는 몬또네로스에 대한 일종의 신비감을 벗겨내 탈신화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두 저널리스트의 논쟁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여덟 사람의 입장 표명으로 이어졌다. 그 중에서 ‘오월광장어머니회-설립자노선’의 멤버이기도 한 노라 데 코르띠냐스(Nora de Cortiñas)는 세루띠가 말한 ‘그들’과 ‘우리’의 구분하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뛰어넘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또 다른 ‘우리’라는 범주를 상징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세대간의 융합점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코르띠냐스는 역사의 재구성의 과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를 공유한 전체 국민에게 해당하는 문제임을 주장했던 것이다.¹²⁾

한편, 『유토피아 사냥꾼』이 촉발시킨 논쟁과는 별개로 두 권의 증언기록이 출간되었다. 1997년에 출판된 이 책들은 지속적으로 재판을 찍어내며 출판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하나는 에두아르도 앙기따(Eduardo Anguita)와 마르틴 까빠로스(Martín Caparrós)가 공동으로 펴낸 『의지. 혁명전투의 역사』(*La voluntad. Una historia de la militancia revolucionaria*)이고, 다른 하나는 미겔 보나소의 『대통령이 아니었던 대통령』(*El presidente que no fue*)이다. 두 책은 모두 1970년대 아르헨티나 좌파 혁명전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저널리즘적 증언물이다.

세 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기록인 『의지. 혁명전투의 역사』는 연대기적인 정리가기도 하다. 제1권은 1966-1973년을, 2권은 1973-1976년을, 그리고 마지막 3권은 1976-1978년의 혁명 투쟁의 기록을 담고

12) “역사의 재구성은 어떤 역사가 되었든 어느 한 사람의 유산이 아니다. 그 역사를 살았건 아니건 진실을 찾는 모든 이들의 자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de Cortiñas 1996)

있다. 객관적인 연대기 정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암시되는 바와 같이 좌파 혁명의 투쟁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태도에 기초한 기록물이다.

한편, 『대통령이 아니었던 대통령』은 1970년대 초 페론(Juan D. Perón)이 영구적으로 귀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자 내세운 대통령 캄뵤라(Héctor J. Cámpora)를 의미한다. 1972년 11월 망명지 스페인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페론은 캄뵤라를 후보로 내세워 선거에서 페론당의 승리를 이끌어낸다. 그 결과 캄뵤라는 1973년 5월 취임을 하지만, 3개월도 안 된 7월에 사임을 해야 했다. 그것은 페론을 다시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한 페론주의민족운동(Movimiento Nacional Justicialista) 세력의 최고이사회의 결정이었다.(Bonasso 1997, 493) 캄뵤라는 좌파세력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들의 표까지 모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택된 대용물이었을 뿐, 처음부터 “캄뵤라를 정부로, 페론을 권좌로”(Cámpora al gobierno, Perón al poder)(344)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궁극적인 실권자는 페론이었던 것이다. 보나소의 이 책은 이렇게 1970년대의 캄뵤라의 전기에 가까운 기록을 통해 당시의 페론에 대한 충성도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좌파 혁명세력들의 갈등과 알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두 책 모두 출간되자 많은 독자를 누렸다. 사를로(Beatriz Sarlo)는 그 이유를 혁명의 시급성이 드높이 제기되던 시절에 대한 기록을 접하고 느끼는 강렬함과 그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찾았다. 즉, 이 책들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삶이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정치가 가장 급진적이던 시절,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념이 특별한 의미를 갖던 시절에 대해 다루고 있고”, 따라서 흡입력과 호소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arlo 1997, 15) 또한 1970년대의 젊은이들은 경제적·사회적 질서의 변화가 이제 머지않았다고 확신했고 그 변화를 위해 젊은 열정을 쏟아야 할 당위성을 받아들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투쟁을 단순히 “젊은 열기(juvenilismo)”(Sarlo, 16)의 결과물로 폄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 두 증언서에서 표출되고 있는, 과거 역사를 성찰하려는 열망

을 향수나 오류의 차원으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사를로의 이러한 표명은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기록물들을 계기로 삼아 1970년대의 좌파 무장투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의 좌파 세력의 무장투쟁을 단순히 젊은이들의 광적인 열기로 평가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역사상 변혁에 대한 갈망이 절정에 달했던 역사적 상황을 간과하는 데서 오는 오류라고 여겼다. 동시에 과거를 성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두 증언서의 출판을 과거에 대한 향수어린 감회의 결과물로 치부해버리는 풍토 또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물들에 대한 사를로의 의미부여가 1970년대 좌파혁명세력의 무력활동에 대한 그의 평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를로가 1970년대 좌파 세력에 대해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3. 좌파 무장세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두 악마론’은 좌파 무장세력을 국가질서의 전복을 기도한 악의 세력이라고 몰아세웠던 우익세력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베세띠의 문제제기는 ‘두 악마론’의 고착화가 왜곡된 시각이고 국가테러리즘을 위한 명분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유토피아 사냥꾼들』이나 『의지. 혁명진투의 역사』, 『대통령이 아니었던 대통령』처럼 1990년대 후반에 양산된 좌파 무장세력에 대한 기록물들은 무장세력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는 방식이었다. 이들의 시선에는 혁명의 시기를 정당화하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혁명 의지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가 반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이 장에서 다룰 사를로의 시각은 무장세력, 특히 몬또네로스의 테러리즘에 대한 냉철하고 엄격한 비판을 견지하고 있다.

사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펼쳐오던 권위주의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열정과 예외』(2003)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앞에서 밝힌 좌파 무장세력 스스로 자신들의 무력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이다. 이 저서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다. ‘에바 페론(Eva Perón)-몬토네로스의 아람부루(Pedro E. Aramburu) 암살-복수의 모티브를 다룬 보르헤스의 단편소설’이 그 세 축이다.

먼저 사를로는 에바 페론의 시신이 페론주의자들에게 지녔던 절대적인 예외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에바의 몸은 살아있을 때에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개체로서가 아니라 페론의 정치적 이상을 담보하는 상징물로서 작용했고, 시신이 아르헨티나로 돌아올 시점에는 몬토네로스의 혁명에 대한 열정을 추동하는 존재로 작용했다.¹³⁾ 군주가 두 개의 몸 - 자연의 몸과 정치적인 몸 - 을 가진 것처럼 에비타의 몸 역시 두 개였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뛰어넘어 신적인 속성을 가진 신화적인 몸으로 상징화되었던 것이다. 에바의 시신에 대한 페론주의자들의 집착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 사를로의 분석이다. 곧 에바의 육신이 몬토네로스에게 의미하는 바는 페론주의에 대한 열정이었고, 혁명을 추동하는 유일한 몸이었다.

1970년 5월 몬토네로스가 아람부루 전직 대통령을 납치하는 테러를 자행하게 된 것은 에바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주장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람부루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사회를 경악시켰다. 몬토네로스 세력의 12인이 가담한 이 사건은 이후 납치 당사자들이 공식 보고문을 통해 자랑스럽게 밝힘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명확해졌다.¹⁴⁾ 아람부루는 1950년대에는 페론의 동지였다가 대항세력으로 변하여 페론을 축출하는 데 일조하고 대통

13) “문제는 에바 페론의 예외성이다”, “옷으로 덮은 몸을 열정이 움직이고 있다.”(Sarlo 2003, 21) “열정은 열정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25)

14) 사건이 일어난 지 3여 년이 지난 1974년 몬토네로스 잡지인 『페론주의의 대의명분』(La Causa Peronista)은 “몬토네로의 날”을 기념하면서 아람부루 암살사건에 가담한 몬토네로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Sarlo, 139)

령 직을 수행하기도 했던 장군이다. 그러니 아람부루는 페론 정권을 무너뜨린 세력의 주모자인 셈이었다. 또 그는 민족주의 혁명운동의 상징이었던 에바 페론의 시신을 빼돌린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좌파 페론주의 무장세력은 에바 페론의 시신을 돌려줄 것을 주장하며 아람부루를 납치했던 것이다. 그 암살은 에바의 시신을 빼돌린 것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다. 몬토네로스 스스로는 앞에서 밝힌 당지 『페론주의의 대의명분』을 통해 이 암살사건을 사회주의 혁명을 가로막는 자유주의적 공화파 정치인에 대한 민중의 응징이라는 차원으로 의미부여했다.

사틀로는 이 납치·암살 사건에서 에바의 육체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예외성(excepcionalidad)을 읽어낸다. 즉, 그것은 좌파 무장세력에 의한 이전의 여러 테러들, 곧 금속노조의 관료였던 아르투로 반도르(Arturo Vandor)의 암살처럼 노동조합의 관료들에 대해 일어난 테러나 기업가들에 대한 테러 등과는 구별되는 독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아람부루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여러 좌파 무장세력들 사이의 힘의 알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당시 몬토네로스는 막 탄생되어 무장세력 안에서 아직 주된 조직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페론의 귀환을 앞두고 충성을 표현함으로써 강력한 지지를 얻고자 했고 아람부루 암살 사건은 그 방책이었다는 것이다.

사틀로는 아람부루 암살 사건을 혁명과 복수의 열정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문호인 보르헤스의 한 단편과 아람부루 사건을 연결하기에 이른다. 「또다른 결투」(El otro duelo)라는 제목의 이 단편은 1870년대 우루과이에서 블랑꼬 당과 풀로라도 당 사이에 정쟁이 벌어졌던 시기를 배경으로 삼아, 블랑꼬 당원이었던 두 경쟁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당원이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견제하는 적이었고, 그들의 적대적인 경쟁관계는 풀로라도 당원들에게까지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 전투에서 블랑꼬당이 패하게 되었다. 그러자 풀로라도 당의 우두머리는 두 가우초의 목을 친 뒤 달리기 경주를 시킴으로써 그들이 최후까지 결투를 하게

한다. 이 단편은 복수를 모티브로 삼았던 보르헤스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사를로가 이 두 가지, 즉 아람부루 사건과 보르헤스의 단편을 연결짓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그는 책이 출간된 직후 구스타보 바렐라(Gustavo Varela)와의 인터뷰에서 그 계기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¹⁵⁾ 즉, 기록들을 통해 아람부루 사건을 검토하는 가운데¹⁶⁾ 그 사건이 몬또네로스의 복수의 결과물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우연찮게도 「또다른 결투」가 아람부루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주에 잡지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사를로는 아람부루 사건에 대한 고고학적인 분석을 시도했고, 그 결과 사건은 아르헨티나 정치문화의 오랜 폐단이었고 보르헤스의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형상화되기도 했던 복수의 전통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람부루 암살 사건에 대해 사를로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를로는 아람부루 사건이 아르헨티나 혁명세력의 문화사를 파악하게 하는 결정적인 한 장(章)이라고 보았다.(Sarlo, 135) 이 사건에서 아르헨티나 혁명세력의 문화사를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람부루의 납치와 살해를 통해 혁명 세력이 내세우고자 한 것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몬또네로스는 혁명세력 본래의 목표가 사회민주주의적인 미래의 건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페론과 에비타라는 두 인물로 표상되는 페론주의적인 과거를 되살리기 위해 암살이라는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결국 혁명의 수단과 방법이 혁명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신화적인 인물을 통해 혁명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점이 몬또네로스의 오류였다는 것이 사를로의 결론이다.

사를로는 혁명정신으로 고양되어 있던 1960년대와 70년대를 긍정적으로 회상하는 태도가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15) <http://www.revistalote.com.ar/nro076/sarlo.htm>

16) 사를로는 이를 ‘고고학적인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보고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 혁명세력에 속했던 이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의 정치는 비록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던가”(Varela 2003)라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사를로는 그런 태도를 일종의 향수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그 ‘오류’의 실체를 밝히고 자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사를로 자신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혁명을 지향하던 좌파세력의 일원이었으나¹⁷⁾ 그 시절을 ‘좋았던 시절’로 떠올리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시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몬토네로스를 비롯한 좌파 혁명세력의 정치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그 스스로 주체이기도 했던 혁명세력에 대한 일정한 비판을 의미한다. 즉, 민주화 이후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 수행되어 온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의 성찰이 아르헨티나 국민 전체의 책임성 논의를 거쳐, 이제는 두 발 더 나아가 좌파 무장세력의 폭력 정치에 대한 성찰로 귀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를로의 자기 반성적 성찰에 대면하여 유의할 것은 1970년대 좌파 무장 게릴라조직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시도하는 그의 논의가 민주화 이행 초기에 우파 보수세력이 만들어놓은 ‘두 악마론’과 혼동되거나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IV. 맺음말

아르헨티나는 2001년 12월의 IMF 위기 이후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었고, 그 난관은 쉽게 극복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그늘을 드리웠다. 그러는 가운데 2003년 현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있었고, 그 승리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키르츠네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지난 시기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기대보다 신중했고 또 소극적인 것이기

17) 사를로는 처음에는 페론좌파에 속해 있었으나 곧, 맑스레닌주의 혁명세력(‘Vanguardia comunista’)으로 옮겨갔다.

도 했다. 오랜 군정 이후의 첫 민선 대통령이었던 알폰신, 페론주의의 이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화신이었던 메넴, 2001년의 경제위기로 임기를 못 채우고 퇴위한 델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이 키르츠네르 이전에 있었다. 국민들은 그 역대 대통령들에게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열망을 기대했다. 그러나 알폰신은 과도기라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메넴은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 델라 루아는 역량의 부족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를 매번 좌절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키르츠네르에게 건 기대는 더 조심스러웠다. 키르츠네르가 지방 주 하원 출신이고 정계에 별 지지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의구심에 한 몫 했다. 국민들이 유일하게 믿는 것은 그가 본래적 페론주의에 가까운 페론주의자이고 중도좌파라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집권 이후 키르츠네르의 정책 방향은 국민들의 그런 기대와 제법 부응해왔다.

그런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조치들이 2003년 5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있었다. 8월에는 상원에서 두 사면법에 대한 폐지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42대 7로 통과되었고, 이듬해 대법원의 판결에서 폐지가 최종 확정되었다. 2005년 3월에는 까를로스 메넴 대통령이 집권 당시 승인했던 수감된 고위 장성들에 대한 사면령이 연방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한편 군사정부가 출범한 지 28년이 되던 2004년 3월 24일에는 ‘기억의 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수많은 실종자들의 시신이 유기되었던 장소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도시 건너편의 라플라타 강 강변에 추모와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독재의 역사를 반성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법적·정치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억의 제자리 찾기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 여러 인권단체들의 작업이 그런 법적·정치적 조치들을 추동하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 군부 시절 당시 조직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오월광장 어머니회와 오월광장할머니회, 그리고 법조계 봉사자들로 구성된 법

과사회연구소(CELS), 민간단체인 평화와정의센터(SERPAJ) 등은 행정부 산하의 인권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를 이루며 활동하고 있다.¹⁸⁾ 특히 ‘오월광장 어머니회-설립자노선’의 경우 정부의 경제적 보상을 수용했고 그로 인해 ‘어머니협회’ 노선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다양한 인권단체들 및 정부산하 기구들과 연대하는 것이 청산 작업과 정의의 실현을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⁹⁾

본고에서 논의한 지식인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앞의 두 가지 차원의 집단기억 형성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 사회의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이 제자리 잡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기도 하다.

베세띠와 사바또는 독일의 경우에 견주어 공포 앞에 순응하거나 침묵했던 아르헨티나 사회 전체가 ‘추악한 전쟁’의 발발에 책임이 있음을 제기했다. 또한 베세띠는 ‘두 악마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의 논의는 더 나아가 사를로에 의해 무장혁명세력, 구체적으로는 몬토네로스의 폭력이 지녔던 오류를 고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혁명은 미래를 위한 과업임을 망각하고 과거의 표상인 페론의 영도력과 에바 페론의 시신에 집착한 몬토네로스의 폭력은 명백한 오류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의 열정은 아람부루의 암살로 치달아 군부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빌미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노력이 지적 아카데미즘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경제적 위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과제이기 때문이

18) 가령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은 그 산하에 인권부(Sub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를 두고 인권침해 및 탄압 사례의 청원사건들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서의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민간단체인 SERPAJ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

19) ‘오월광장어머니회’는 현재 두 노선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회-설립자 노선(Madres de Plaza de Mayo-Línea Fundadora)’은 정부의 인권 정책들 및 행정부 산하의 인권 부서들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편이고, 그와 반대로 ‘오월광장 어머니협회(Asociación de Madres de Plaza de Mayo)’는 대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강경파라고 할 수 있다. 에베 보나피니(Hebe Bonafini)는 이 강경파 노선의 회장으로, 대외적으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더 인지도가 있다.

다. 특히 1970년대 초 좌파 무장세력에 대한 사를로의 새로운 접근의 시도는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오욕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어서 더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보수 우익 계층에 의해 악용될 여지를 감수하고 좌파 세력에 대한 일정한 자기 반성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군부독재 기간을 거치면서 왜곡된 선과 악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올바른 민주주의 문화를 축적해갈 때가 되었다는 지적·양심적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군부 쿠데타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적 정의조차 아직 불완전하고 실종자들에 대한 투명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논의의 제기가 이르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를로의 입장은 진정한 악에 대한 처벌이 요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악마’의 논리를 벗겨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할 때가 되었다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사를로의 논의가 아르헨티나 전 지식인에게 공유되는 단계에 이르는 못했지만, 좌파 무장세력의 일원이었던 지식인에 의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것은 집단적·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역사적 객관성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곧 개인적인 경험의 기억들이 무차별적으로 축적되는 단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찰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Este trabajo tiene por objetivo investigar las reflexiones propuestas por los intelectuales de izquierda argentinos respecto al último golpe militar del cual padeció dicho país en los últimos años de la década setenta hasta la llegada de la democracia en el año 1983. Para realizar el trabajo, nos enfocamos en los escritos de los tres intelectuales de izquierda.

En primer lugar, Hugo Vezzetti, historiador y psicólogo, ha planteado

la temática de la construcción colectiva de la memoria y la problemática de la "responsabilidad colectiva" y social. En su argumentación de la responsabilidad, Vezzetti plantea la hipótesis de que un pueblo en forma colectiva deba asumir un sentido de responsabilidad, por no haber tenido la capacidad de evitar la dictadura ni de protegerse contra ella.

Hilda Sabato, reconocida historiadora, concuerda con el argumento de Vezzetti y agrega una necesidad de reflejarse en colectivo. Esto significa que ya estamos en el tiempo que el pueblo argentino mismo también debe presenciarse delante de la justicia histórica. La problemática de la historiadora consiste en que los argentinos deban reconocerse su culpabilidad como una de las causas de la dictadura.

Por otra parte, con Beatriz Sarlo, es preciso considerar un nuevo punto de vista sobre los "Montoneros", militantes armados de izquierda peronista intransigente en los años 1970. El gobierno militar y los sectores de derecha crearon 'la teoría de doble demonios' con el fin de acusar a los guerrilleros de izquierda de la forma que justifique el terrorismo derechista cuya mejor expresión podemos encontrar militaren la AAA (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 y el golpe. Dentro de la teoría de doble demonios el terrorismo derechista estatal se justifica con la argumentación de la existencia previa de otro terrorismo, el activismo radical de izquierda. Con esta justificación distorsionada de la imagen, los Montoneros no pudo emergerse a la luz como un tema sincero, en los estudios de historia permaneciéndose por muchos años en la censura y el tabú.

Estos tres intelectuales, para salir de un círculo fatal de acusaciones, han hecho esfuerzo de revelar la falsedad de esta teoría, y también han comenzado a reflexionar sobre la probabilidad de error del activismo izquierdista en los años setenta. Una vez cumplido el juicio a los militares, hoy es el momento de empezar una suerte de acercamiento reflexivo respecto a las actividades llevadas a cabo por los Montoneros.

Así han llegado a proponer la hipótesis de que el activismo armado de los Montoneros también estuvieran ligado a una pasión por la violencia y de esa forma ofrecieran un pretexto a otro terrorismo por parte del gobierno militar. Estas reflexiones por parte de los intelectuales de izquierda contribuirán al pronto establecimiento de un verdadero juicio y una verdadera memoria sobre la trágica historia de dictadura militar.

Key Words: terrorismo, memoria, discursos reflexivos, responsabilidad colectiva, teoría de doble demonios, Montoneros / 테러리즘, 기억, 성찰적 담론, 집단 책임, 두 악마론, 몬또네로스

논문투고일자: 2006. 4. 27.

심사완료일자: 2006. 5. 11.

게재확정일자: 2006. 5. 22.

참고문헌

- 미국무성 비밀분류해제문서고 아르헨티나 편(<http://www.gwu.edu/~nsarchiv/NSAEBB/NSAEBB73>)
- 박구병(2005), “‘눈까 마스크’와 침묵협정 사이: 심판대에 선 아르헨티나 군부의 ‘더러운 전쟁’”,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2, pp. 57-84.
- 안병직 외(2005), 『세계의 과거사청산』, 서울: 푸른역사.
- 오월광장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 홈페이지 (www.madres.org)
- 이국운(1995), “아르헨티나 인권 재판의 전개과정”, 법과 사회, Vol. 12, pp. 282-302.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5-kw-lee2.htm>)
- 프로젝트팀 ‘역사와 기억: 과거청산의 국가별 사례 연구’의 라틴아메리카팀 아르헨티나 번역자료실(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 현지조사 인터뷰 문서(2004년 2월, 아르헨티나): Ana María Shúa(2월 12일), Pedro Krotsch(2월 13일), Carlos Altamirano(2월 16일), Hugo Vezzetti(2월 19일), Eduardo Romano(2월 20일), David Viñas(2월 20일)
- Anguita, Eduardo and Martín Caparrós(1999), *La voluntad. Una historia de la militancia revolucionaria I, II, III*, Buenos Aires: Editorial Norma.
- Blaustein, David(1995), *Cazadores de utopías*, Producción Zafra Cine Difusión(Documental).
- Bonasso, Miguel(1996), “La victoria de la memoria”, <Debate sobre la memoria, los montoneros y el futuro>, *Página 12*, 7 de abril, p. 14.
- _____ (1997), *El presidente que no fue*, Buenos Aires: Edit. Planeta Argentina.

- Borges, Jorge L.(1970), “El otro duelo”, *Obras Completas II*, Buenos Aires: Emecé, pp. 1058-1061.
- Cerruti, Gabriela(1996), “La manifestación de los 70”, <Debate sobre la memoria, los montoneros y el futuro>, *Página 12*, 7 de abril, p. 15.
- CONADEP(1984), *Nunca más. Informe de la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Buenos Aires: Eudeba.
- “Contra esa nostalgia de los '70 que algunos tienen”(Entrevista con Beatriz Sarlo), *Río Negro On Line*, Domingo, 24 de agosto, 2003(www.rionegro.com.ar/arch200308/s24j23.html)
- De Cortiñas, Nora(1996), “La historia debe ser apasionada”, <Polémica sobre los sesenta, la violencia y la militancia>, *Página 12*, 21 de abril, p. 29.
- Fernández Díaz, Jorge(2003), “Sólo el peronismo puede gobernar” (Entrevista con Beatriz Sarlo), *La Nación*, Sábado, 23 de agosto.
- Forn, Juan(1996), “Más allá de las generaciones”, <Polémica sobre los sesenta, la violencia y la militancia>, *Página 12*, 21 de abril, p. 29.
- Gasparini, Juan(1999), *Montoneros. Final de cuentas*, 2a ed., La Plata: De la campana.
- Jelin, Elizabeth(2003), *State Repression and the Labors of Memory*, (trans. by Judy Rein and Marcial Godoy-Anatív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ink, Daniel(2003), “Reina de corazones”(Entrevista con Beatriz Sarlo), *Página 12*, Domingo, 10 de agosto.
- Sábato, Hilda(2000), “기억, 과거, 그리고 미래”(2000년 3월 ‘제1회 집 단기억의 형성에 관한 라בל라따 학술대회’ 발표문) (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 Sarlo, Beatriz(1997), “Cuando la política era joven”, *Punto de Vista*, No.

- 58, Agosto, pp. 15-19.
- _____ (2003), *La pasión y la excepción*, Buenos Aires: Siglo XXI.
- Schapces, Marcelo(1996), “Una parte de un gran rompecabezas”, <Polémica sobre los sesenta, la violencia y la militancia>, *Página 12*, 21 de abril, pp. 28-29.
- Sonderéguer, María(2000), “Una política de la memoria”(Presentación en el Congreso LASA 2000 - Derechos humanos y democracia en Argentina.), www.prodiversitas.bioetica.org/nota55.htm.
- Strejilevich, Nora(1999), “La función crítica y estética como eje de una política cultural destinada a Latinoamérica”, www.utexas.edu/cola/lilas/events/oldevents/culturaypaz/strejilevich.pdf
- Susana, Viau(1996), “Una historia no tan incomprensible”, <Debate>, *Página 12*, 16 de abril, p. 13.
- Todorov, Tzvetan(2002), *Memoria del mal, tentación del bien*, (trad. por Manuel Serrat Crespo), Barcelona: Península HCS.
- Uriarte, Claudio(1996), “Cazadores sin muchas utopías”, <Polémica sobre los sesenta, la violencia y la militancia>, *Página 12*, 21 de abril, p. 28.
- Varela, Gustavo(2003), “La pasión de la venganza”(Entrevista con Beatriz Sarlo), *Revista Lote*, No. 76.(www.revistalote.com.ar/nro076/sarlo.htm)
- Vezzetti, Hugo(1985), *La locura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Paidós.
- _____ (1999), “La memoria nos involucra”, 8 de julio(‘역사와 기억’ 프로젝트 라틴아메리카팀 아르헨티나 번역사료 27번 “기억이 우리를 한테 묶는다”)(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 _____ (2002), *Pasado y presente. Guerra, dictadura y sociedad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Siglo XXI.
- Villanueva, Ernesto F.(1996), “La historia de los vencidos”, <Debate>, *Página 12*, 16 de abril, p. 13.